

# GGM 부분파업 장기화 조짐...중재안 도출 서둘러야

### 조합원 228명 중 65% 참여 네번째 파업...노사 갈등 격화 잔업 거부도...수출 차질 우려에 경영진 신입사원 채용 나서 광주노사민정 특위 중재조정기간에...지역사회 비판 목소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18일 또다시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 파업 선포 이후 4번째 부분 파업으로, 노조는 지난달 20일 GGM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가동 이후 파업을 멈췄으나 이날 재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지역사회가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위를 가동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단체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현대차로부터 위탁 생산 중인 캐스퍼 전기차(EV)의 해외수출

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GGM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조의 파업사태에 맞서 19일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GGM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 등에 따르면 GGM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간의 부분 파업과 2시간의 잔업을 거부했다. 부분 파업 참가자는 전체 조합원 228명 중 148명(65%)이다.

이날 부분 파업은 노동조합이 파업 선포 이후 4번째다. 노동조합은 앞서 지난달 10일과 14일, 16일, 23일,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110여명이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GGM 노조는 이날 파업 배경에 대해 "사측의 도발 때문"이라고 밝혔다.

GGM 노조가 밝힌 파업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GGM 경영진이 지난달 출근길 선전전을 벌인 노조 간부들을 광주광산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점, 임금 인상안을 거부한 점,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철거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GGM 노조는 "업무방해 등 사측을 고소할 수 있는 안건은 많았지만 구체신청만 하고 상황을 해소 시키려 했으나 사측에서 노조원들을 고소했으니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GM 사측은 "이미 노사상행협정발전에 따라 물가상승률(3.6%)만큼의 임금인상이 됐다"며 "현수막 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등 정치 현안을 빚고 있어 불가피하게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사회가 특위를 구성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GGM 문제

봉합에 나선 상황에서 GGM 노동조합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17일 첫 회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한 특위가 하루 빨리 중재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 소속 한 인사는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5차례 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라며 "출범 당시 말한 것처럼 최대한 빨리 중재안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GGM 노조의 파업으로 캐스퍼 EV 생산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GGM의 올해 생산물량은 지난해보다 7.2%(3800대) 늘어난 5만6800대로, 이 가운데 전기차 생산량은 4만7700대다. 수출물량은 전기차 전체 생산량의 75%(4만2900대)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일본 등 64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생산물량은 늘었지만 지난해 노조의 반대로 2교대 도입이 무산되면서 GGM은 현재 화·목요일 2시간 잔업과 토요일 특별근무(8시간)로 생산량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부분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생산물량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로 인한 대외 신뢰성 하락도 우려된다. 당장 현대차가 지난해 노동조합 결성된 이후 올해 캐스퍼 내수물량을 줄인 바 있어,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GGM 경영진은 우선 파업으로 부족해진 생산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19일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 계획이다.

GGM 관계자는 "파업이 언제 중단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 신입사원을 채용을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며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20명 안팎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HS효성 조현상 부회장, 미국 이어 호주행...민간 통상 외교 행보

### APEC 기업인자문인 회의 주재

재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미국과 호주를 연달아 방문하며 민간 외교에 나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오는 23~2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회의의 의장으로서 주재한다.

ABAC 회의는 이달을 시작으로 연간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역 환경 개선,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녹색경제 촉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해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BAC 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시아 태평양 기업인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 부회장은 호주 출장에 앞서 19일(현지시간)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

문한다.

사절단은 19일 '한미 비즈니스의 밤' 갈라디너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내각 주요인사 등 150여명을 만났던 이어 이틀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과 한국 기업들의 대미 액션플랜 등을 논의한다.

조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상의회장, 4대 그룹 사장단 등과 함께 백악관 고위당국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계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조지아 구다우리 전망대 전경.

## 롯데관광 코카서스 직항 전세기 패키지 출시

### 아제르바이젠 등 3국 여행 이동시간 절반 가까이 줄어

"조지아, 아제르바이젠, 아르메니아-카파카스 산맥을 따라 여행하는 코카서스 3국."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코카서스 3국으로 떠나는 직항 전세기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코카서스 지역은 직항 노선이 없어, 항공편 경우 시 최소 15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여행 상품은 대한항공 직항 전세기를 이용해 약 9시간 30분 만에 코카서스에 도착한다. 경유시간을 줄여 7박 9일 일정 동안 최적의 동선으로 코카서스 3국을 돌아볼 수 있다.

상품 출발일은 5월 25일과 6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등 6회다.

코카서스 3국으로 불리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는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있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상품 주요 일정으로는 코카서스의 알프스로 알려진 '카즈베기'와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주

상절리아자트' 하이킹 코스(총 2회)가 포함돼 있다.

시간이 멈춘 듯 아름다운 카즈베기 전경을 느낄 수 있는 '카즈베기 루스호텔'을 비롯해 모든 숙박이 5성급 호텔로 구성돼, 여행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또 트빌리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관람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레스토랑 '후니쿨라 레스토랑' 특식도 포함됐다.

김육근 롯데관광개발 광주지사장은 "코카서스 3국은 다소 생소하지만 지도를 보면 러시아와 튀르키예와 가까운 익숙한 곳"이라며 "편리한 직항 전세기로 신화의 땅 코카서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패키지 출시를 맞아 항공차별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할인 이벤트와 '롯데관광 광주지사' 예약자 한정 인천공항 왕복 수송 혜택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 및 예약은 롯데관광 광주지사(062-1688-1104)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은행 노사 "지역 대표은행으로 지역민과 동반 성장"

### 소상공인 등 다양한 금융상품

광주은행 노사는 18일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 및 금리 혜택을 포함한 지역 상생 방안을 발표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민들의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역 상생 행보의 시작으로 광주은행은 지난달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5000억원 한도로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지역 상생 중소기업 특화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이어 지역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인 '기업튼튼보증서 특별대출'을 700억원 한도로 최대 연 1.9%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1000억원 한도로 최대 연 1.3%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지역상생 아파트 특판 대출'을 출시해, 지역민들의 잦은 이사가 예상되는 봄철에 대비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을 위한 '아이키움저금II'는 상품 우대금리 최대 연 1.8%p, 이벤트 우대금리 연 1.0%p를 제공해 최고 연 5.8%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

도 진행해 저금리 상품에 지친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해당 상품들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만 광주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을 비롯한 금융 사각지대까지 돌볼 수 있도록 첫 번째 신평안으로 다양한 대출 상품 출시 및 금리 인하정책을 발표했다"며 "광주은행 노사가 상호 협력해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최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삼성전자 글로벌 TV 시장

### 19년 연속 1위 달성 매출 기준 점유율 28% 기록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9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사진>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다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28.3%를 기록했다. 2006년 이후 19년간 연속 1위다. LG전자는 16.1%로 2위를 지켰고, 중국 TCL(12.4%)과 하이센스(10.5%), 일본 소니(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TV 시대를 선연한 삼성전자는 네오(Neo) QLED-OLED-초대형-라이프스타일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으로 1위를 지켰다.

삼성 TV는 2024년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



장에서 매출 기준 49.6%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 2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QLED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6.8%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QLED TV 시장의 경우 275만대가 판매되며 전체 TV 시장의 10.9%를

차지,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넘었다.

2022년 첫 출시한 OLED 시장에서도 삼성은 14만대를 판매하며 매출 기준 27.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수량이 42%, 매출 점유율은 4.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김동수 광주세관장, 여수석유화학공장 방문

### 현장의견 청취·위기대책 논의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표업체인 롯데케미칼(주)을 방문해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둘러 보았다.

이번 방문은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산업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관

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세관장은 이날 롯데케미칼(주) 내 첨단소재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전반적인 업체 현황 및 관세 행정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석유화학업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 개선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규제 혁신 및 관세행정 지원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신보, 해남군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지난 17일 해남군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남군은 전남신보에 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전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2025 땅끝해남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협약보증은 해남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한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상향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보증수수료를 연 0.8%까지 인하하여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

보전' 자금과 '협약보증'을 연계하면 대출이자를 연 1.8%(2년간)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6.81 (+18.39)
↑ 코스닥	773.65 (+5.17)
↓ 금리(국고채 3년)	2.641 (-0.018)
↓ 환율(USD)	1442.00 (-0.30) (오후 5시 55분 기준)

## 지난해 광주·전남 소매판매·건설수주 줄고 인구 순유출 지속

### 호남통계청 '지역경제동향'

지난해 광주·전남은 전년보다 소매판매, 건설수주가 줄어드는 등 경제지표는 악화됐고, 인구 순유출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광주시 소매판매는 지난 2022년(-2.1%), 2023년(-1.8%)에 이어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환과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수주액

역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광주 건설수주액은 건축·토목공사 모두 수주가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6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역시 소매판매와 건설수주가 모두 줄었는데, 전남 소매판매액 역시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전문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줄어들면서 -1.5%(2022년)→-4.4%(2023년)→-3.6%(2024년) 등 3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전남 건설수주액은 전년에 견줘 16.9% 감소했다. 건축·토목 모두 수주가 줄었지만 감소폭은 작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와 전남 모두 지역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도 지속됐다.

광주는 지난해 7962명이 타지역으로 순유출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037명으로 가장 많이 지역을 떠났고, 30대(-1823명), 50대(-1134명)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3988명이 순유출됐다. 전남 역시 20대가 6345명으로 가장 많이 유출됐다. 이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타지역의 대학교 합격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떠난 것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